

룻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

고창룡 (한남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룻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가치

1. 빈곤문제와 돌봄경제
2.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

III.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와 모델

1.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
2. 기독교 사회적기업 모델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7.04>

• ABSTRACT •

Christian social enterprise principle and model in The Story of Ruth

Prof., Ko, Chang-Ryong (Hannam University)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 as a means of solving the capitalist problem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is increasing. However, research on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inciples and models of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demonstrated in the Story of Ruth. To begin with,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and it delves into the Story of Ruth as well as the stories of Hesead and Go'el, with the perspective of agape care and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community. This study suggests seven principles and eight models of Christian social enterprise. Additionally, the research advances the notion that there exists not only the social value of neighborly love but also the unique value of God's love. Thus, this research has done an interdisciplinarity study with a new perspective on the principles and models of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by biblical stories as it searches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values.

Key words: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Care Economy, The Story of Ruth, Hesead, Go'el,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오래전부터 여러 국가에서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고용정책 실패, 사회복지서비스 감소 등에 대응하는 대안 경제가 모색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시장 위기와 2020년 코로나 19(COVID 19)의 신종 질병으로 위기 상황조차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탐욕 자본주의¹⁾를 경험하며 다양한 대안 경제체제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유럽에서 실업과 사회적 배제 등 국가별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단체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미국은 1960년대 정부 지원 축소에 대응하는 비영리조직의 빈곤층 직업훈련 지원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장지향적 활동으로 발전하였다.²⁾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국가별 태동 배경과 발전과정, 제도화된 형태의 특성에 따라 연구자의 관점에 의해 다양하게 강조된다. 먼저, 국가별 태동 배경과 발전과정 관점에서 유럽은 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고용 및 지원을 강조하며, 미국은 비영리기관이 소유, 운영하는 시장관점의 상업적 벤처를 강조한다.³⁾ 둘째, 제도화 관점에서 한국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국한하므로 제도적 형식을 강조한다.⁴⁾ 하지만 일부 연

-
- 1) 조용훈, "위협사회의 사회적 특징과 기독교적 성찰," 『신학사상』 181(2018), 153.
 - 2) 봉원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기업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017), 390-391.
 - 3) 오단이, 김정선, 하태선,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국제개발영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7(2017), 89.
 - 4)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법 제2조 제1항)한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관련 법률의 인증요건은 1) 회사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 및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구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도의 정신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포함한다.⁵⁾

셋째, 연구자 관점에 따라 시장경제의 대안 경제,⁶⁾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경영⁷⁾으로 구분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의 범주로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자별로 의견이 다르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제의 대안 경제로서 사회와 지역의 문제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경영 가능한 모든 조직체”로 재정의된다.

한국의 대안 경제는 과거 농촌계몽과 노동운동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부조리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연관성이 높다. 한국기독교도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재단·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는 활동방식으로 출발하여 점차 사회적경제로 변화되고 있다.⁸⁾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2020년 3월말 현재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 영업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구비, 7) 사회적 목적을 위해 발생 이익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94&efYd=20120802#0000>, 2020.3.16.

- 5) 오단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1(2013), 289.
- 6) 관련 연구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적 의미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가리키는 조직적 의미’로 정의하는 오단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위의 논문, 289.
- 7) 이종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형태로서 기업의 목적 그 자체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두는 형태로 정의하며, 공식기는 ‘사회적 목표를 기업경영 방식으로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종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약성서적 근거,” 『신학사상』 165(2014), 68; 공식기,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신학과 사회』 28(2014), 78.
- 8) 오단이 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81.

2,456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⁹⁾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로 2018년말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 41,917명 중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는 25,529명으로¹⁰⁾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시민사회 운동으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이 정부 주도의 제도화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대안이 되었다.

이처럼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회적기업의 관심은 기독교 가치와 연관된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유사하다.¹¹⁾ 이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의 사회적기업 관심은 높다. 2018년 기준 238개의 종교계 사회적기업 중 기독교계는 99개(41.6%)로 가톨릭계 84개와 불교계 55개에 비교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기독교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연계지원 등의 관심을 반증한다.

하지만 기독교 학계의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이들 연구도 단편적, 추상적 접근으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를 선행연구에 나타난 이론적 근거와 개념 정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근거는 기독교 윤리와 선교이다.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는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실천을 강조한다. 한국 사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03월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selist_country_popup.do, 2020.04.08.

10) 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성남: 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11.

11) 오단이 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85.

12) ‘고용노동부, 종교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307>, 2020.04.15.

회에서 기독교 경제정의 운동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해방 이후 도시선교회 및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경제정의 운동을 거쳐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설립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다양한 경제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¹³⁾ 즉, 사회정의 및 경제정의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실천적 활동이다.

선교적 관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선교적 교회론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즉, 지역공동체의 공동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의 문제해결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적극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과 지역사회 문제 참여, 지역 내 선교 등 기독교 목적과의 유사성이다. 이는 선교적 교회론과 연결된 선교적 사회적기업 증가의 배경이 된다.¹⁴⁾

둘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차용하거나, 특징 또는 의의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장석인 외는 종교적 사회적기업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적기업을 “청도교 정신과 성경적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기업조직”으로 정의한다.¹⁵⁾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근거와 정의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를 사회복지재단 등 비영리조직

13) 최경석은 한국 기독교의 경제운동을 칼 바르트, 에큐메니컬 운동, 그리고 공공신학의 ‘책임사회론’ 관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적으로 분석한다. 최경석,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에 대한 평가,”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65-292.

14) 장석인, Simon Fietze, 성연옥, 임상호, “종교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9(2018), 131.

15) 위의 논문, 130-132.

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와 비교할 경우 그 범위가 축소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보다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의한다.¹⁶⁾ 즉, 기독교 가치와 관련하여 기독교 윤리와 선교를 강조하며, 이들 가치와 연관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제시한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경제적 가치는 간과하고 있다.

셋째, 선교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을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사회적기업과 기독교의 유사성을 선교적 교회의 특징 관점에서 근접공간,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영리사업, 지역주민 중심, 자생적 신앙공동체 등으로 설명한다.¹⁷⁾ 즉, 선교적 교회론 관점의 선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회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봉원영의 주장¹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가치는 선교명령(마28:19-20)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연관된 문화명령(창1:26-28)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 사회적기업과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과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유사성은 강조되지만, 구체적인 차이점과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성서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전무하다.

룻기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룻기는

16) 선행연구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기독교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구분된다. 기독교 가치는 선교적 목회, 청지기 정신, 소명의식, 경제적 정의, 창조질서 회복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 및 참여,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관점에서 다음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치구성 형태로 강조한다. 차정식, “오이코노미아와 사회적 기업의 성서신학적 기초,” 『신학과 사회』 32(2018), 10; 조용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의 과제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2013), 177-183; 공석기,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80.

17) Frost, M. & Hirsch, M., *The Sharpen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옮김, 『새로운 교회가 온다』(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56-61.

18) 봉원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기업 이해,” 398.

사사시대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에게 시집온 룻을 배경으로 한 짧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룻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학과 사회윤리의 사상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공감한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 중 본 연구는 윤리적 관점과 관련된다.

윤리적 관점은 구약시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율법의 제도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을 강조한다. 제도적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억압받는 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 안전망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율법은 문자적 해석보다 율법의 정신(출 22:21-22)¹⁹⁾이 전제된다. 실천적 관점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이삭줍기와 고엘제도, 수혼제도의 실천적 행동인 헤세드를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헤세드, 즉 아가페적 돌봄과 고엘제도 등의 사회안전망은 본 연구 주제인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룻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 연구를 목표로 한다.²⁰⁾ 구체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헤세드의 아가페적 돌봄과 윤리적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와 관련된 돌봄 경제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룻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분석한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를 가치와 기업경영 관점에서 도출하고 실천적 모델을 도출한다.

19) 강영실, “레위기와 룻기에 나타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10(2005), 197-199.

20) 구약시대 룻기 이야기에서 현대의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첫째, 룻기 시대 혈연공동체를 오늘날 언약기반의 가족공동체로 전제한다. 둘째, 사회-문화경제-제도 등 환경보다 사회적 약자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방법에 국한한다.

II. 룻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가치

1. 빈곤문제와 돌봄경제

룻기는 구약시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빈곤과 이를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농경문화의 혈연공동체 기반 가부장적 사회에서 풍족했던 나오미(룻 1:20)는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룻 1:1-5)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다. 스스로 괴로움, 고통 등을 의미하는 ‘마라’로 개명할 만큼(룻 1:20-21)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빈곤한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진다. 룻도 나오미 못지않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 고향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이방인 과부의 신분으로 생활해야 했다.

나오미와 룻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돌봄은 헤세드 관점에서 검토된다. 룻기에서 헤세드(Hesed)는 선대(룻 1:18), 은혜(룻 2:20), 인애(룻 3:10) 등으로 문맥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도 규범적 책임과 관계, 성품 등의 관점에서 헤세드를 다양하게 정의한다. 규범적 책임 관점에서 송병현은 “서로에게서 요구되는 책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정의한다²¹⁾. 관계관점에서 자켄펠드((Sakenfeld, K. D.)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은혜”로 정의한다.²²⁾ 성품 관점에서 제임스(James, C. C.)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인간이 적극적이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서로

21) 송병현, “룻기의 신앙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07』(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426.

22)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150.

돌보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정의한다.²³⁾ 반면에 이성혜는 헤세드를 하나님의 본질이며, 성품으로 설명한다.²⁴⁾ 또한, 이사야는 율법과 민족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보다 더한 채움의 은혜를 숨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한다.²⁵⁾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²⁶⁾이며, 이를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아가페(agape)이다.²⁷⁾ 따라서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를 나오미와 룻의 빈곤을 해결하는 아가페적 돌봄으로 정의된다.

아가페적 돌봄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아스의 돌봄, 룻의 돌봄, 그리고 오벳의 돌봄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돌봄은 헤세드를 하나님의 본질이며 성품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룻기 전반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룻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뭄의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거나(룻 1:6), 우연으로 보아스 밭에 이른 룻이 보아스와 만나고(룻 2:3-16), 이삭줍기로 생계를 해결하다가(룻 2:17) 결혼으로(룻 4:13a) 나오미를 봉양할 상속자인 아들을 주신(룻 4:13b-15) 것은 숨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즉 아가페적 돌봄으로 설명되며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보아스의 돌봄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인간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헤세드이다. 사회적 약자인 룻은 보아스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적 돌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룻의 돌봄(룻 3:10)은 나오미 가족

23) James, C. C., *Finding God in the Margins*, 이여진 옮김,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고양: 이레서원, 2018), 76.

24) 이성혜,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 『개혁논총』 33(2015), 14.

25) 이사야,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룻기의 윤리적-신학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6(2013), 228-238.

26) 김윤희, “룻3장: 헤세드의 세 사람,”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07』(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524.

27) 김중은, “룻기의 구조 및 신학,”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07』(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401.

에 국한된다. 룻의 아가페적 돌봄은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도 노년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오벳의 돌봄은 실현되지 않은 예언적 돌봄이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으로 안식하고,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땅의 소유권을 보아스가 기업 무름으로 빈곤 문제에서 회복한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 토지의 상속자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회복이다. 오벳은 나오미의 불완전한 회복을 예언적으로 해결하는 돌봄의 주체가 된다.

룻기에 나타난 아가페적 돌봄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독교 사회적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아가페적 돌봄의 충족 요건인 시혜자와 수혜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라는 관점²⁸⁾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약자로서 생존과 결부된 문제와 관계된 수혜자이다. 룻기는 사회적 약자 중 과부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나오미는 장년 또는 노년 세대이며, 룻은 이방인이라는 또 다른 특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절대빈곤 상태의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룻기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는 과부와 빈곤 노인, 그리고 이주여성으로 규정된다.

둘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아가페적 돌봄의 주체는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아스는 경건하며, 관대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²⁹⁾으로 소개된다. 특히 유력한 자(룻 2:1)의 표현에서 룻과 나오미를 아가페적 돌봄이 가능한 주체임을 암시한다. 나오미를 아가페적으로 돌본 룻도 현숙한 여인(룻 3:11)으로 평가된다. 현숙한 여인은 유력한

28) Sakenfeld, K. D., *Interpretation : Ruth*, 민경진 옮김, 『현대성서주석-룻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59.

29) 신득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약본문 해석과 적용: 룻기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0(2015), 127.

자와 같은 단어 ‘하일’을 사용한다. 또한, 오벳도 미래의 가장으로 나오미의 노년을 돌본다는 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예언적 돌봄이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 아가페적 돌봄의 주체와 대상 간의 적극적이고 확립된 관계 조건이다. 베들레헴 지역의 친족공동체를 배경으로 가족과 친족인 룻과 오르바, 보아스와 아무개는 역할이 대비된다. 오르바와 아무개는 이웃사촌보다 못한 멀리 있는 친척의 느슨한 관계인 반면에 이방인 룻은 친척관계인 보아스와 가족이라는 적극적이고 확립된 관계로 발전한다.

2.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

사회적 약자의 빈곤 문제와 그 해결방안은 기독교 경제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성경적 관점의 경제원리로 인식과 실천적 방법으로 구분한다. 인식은 하나님과 실천 주체들의 문제 인식이며, 실천적 방법론은 분배와 회복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포함한다.

인식 차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실천적 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인간과 자연을 창조한 궁극적인 경제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며³⁰⁾ 실천적 주체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에서 경제활동 주체를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삶의 본질인 노동을 통해, 자원을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청지기로 인식하는 것이다.

실천적 방법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분배 비율을 공황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분배적 정의와 부조리한 사회구조나

30) 박동현, “구약의 경제 윤리,” 「구약논단」 1(1999), 5-26; “구약의 경제 윤리(II),” 「구약논단」 1(1999), 139-164.

깨어진 질서로부터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로 구분된다. 희년 제도와 고엘제도는 회복적 정의와 관련되며 이삭줍기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희년제도는 토지와 신분을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 이상의 회복적 정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 영성부터 사회 전반에 종교적, 경제적, 생태적 차원까지 확장하여 회복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회복이다.³¹⁾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법으로서 통치적 특수성과 사회제도화로 하나님 자신이 구속자인 회복적 특수성,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특수성을 나타낸다.³²⁾

반면에 고엘 제도는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회복하는 사회안전망이다. 고엘은 나라 전체가 재난에 빠진 상황이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에서 구속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이웃의 토지와 신분, 피 무르기로 감당하는 기업 무를 자로 구분된다. 토지와 신분 무르기는 사회적 약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을 회복하는 것이다.³³⁾

이삭줍기는 분배적 정의를 강조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에게 이삭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소산이 분배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삭줍기의 배경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종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던 경험에 기초한다(신 24:18, 22).

한편, 룻기에 나타난 사회안전망은 이삭줍기와 고엘 제도, 그리고 수훈

31) 민중기, “요셉의 토지 제도와 희년법의 사회 정의,” 김수정 대표편저, 『고엘, 교회에 맡길다』(서울: 홍성사, 2017), 46-48.

32) 위의 책, 43-44.

33) 이성혜,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 22.

제도이다. 이들을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연관하기 위해 빈곤의 상황, 회복 절차, 공동체의 의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검토한다.

먼저, 나오미와 룯의 빈곤은 사회구조적 빈곤이다. 흉년에 의한 가난과 달리 구약시대 남편과 두 이들을 잃은 나오미와 며느리 룯은 남성 중심의 가족공동체 사회구조에서 소유와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했다. 이는 비자발적인 사회구조적 빈곤이다.

둘째, 나오미와 룯이 빈곤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이삭줍기와 고엘제도, 수혼제도로 구분된다. 이삭줍기는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단기적 문제해결 방법이다. 반면에 고엘제도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토지를 무름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이다. 특히 나오미와 룯이 과부라는 점에서 남편과 자녀를 통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수혼제도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룯기의 공동체 경제윤리가 분배적 정의로 시작되어 회복적 정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인 삶으로 회복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셋째, 공동체의 실천적 의무도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삭줍기가 반드시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삭줍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룯 2:9; 2:15-18)과 율법이 정하는 수준의 의무만 선택한 아무개 사례를 통해 공동체 차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 인식이 구성원 개인의 실천적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인식이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실천중심의 신앙이 강조되어야 한다.

III.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와 모델

1.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는 선행연구와 룻기에 나타난 신학 및 사회 윤리 사상을 종합하여 도출한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단편적, 추상적으로 성공 요인, 또는 장애 요인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치요인 관점에서 오단이 외는 기독교 가치를 총체적 선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관점에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선교목회의 이해,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역사회 봉사로서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주장한다.³⁴⁾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기독교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성공 요인은 선교관점과 기업관점, 그리고 사람 관점으로 검토된다. 선교관점에서 조용훈은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요건으로 교회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목회적 이해를 전제로 자활 지원의 사회봉사 전략, 빈민 대상의 비즈니스 선교, 기독교 기업관과 직업관,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을 제시한다.³⁵⁾ 황병배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를 통해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와 사회적 약자의 자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전문가 자문, 기업경영의 효율화, 기독교 사회적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다.³⁶⁾ 이들 연구는 교회와 선교 중심의

34) 오단이 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86.

35) 조용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의 과제에 대한 연구,” 177-183.

36) 황병배, “한국 기독교 사회적 기업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2(2012),

사회적기업 접근이라는 특징이 있다.

기업관점에서 장석인은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기독교 특성과 종교시설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천 지향적인 콘텐츠 개발,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공을 위한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적 기업가의 체계적인 육성,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³⁷⁾ 이러한 주장은 다른 연구자들의 성경적 또는 신학적 근거에 의한 담론적 주장과 달리 실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람 관점은 차정식과 공석기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공석기는 사회적기업의 리더와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와 원칙의 성찰, 기업가적 자질, 리더십, 그리고 혁신 마인드를 강조한다.³⁸⁾ 반면에 차정식은 청지기 정신과 소명의식을 강조한다.³⁹⁾ 청지기 정신이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자신의 직책과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 즉 소명의식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살림의 경제와 회복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성공 요인에 해당한다.

셋째, 활성화 장애 요인도 확인된다. 공석기는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가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이념에 기초한 편견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위탁 및 관리방식의 일방적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실천 프로그램보다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며, 사회적기업가로 준비과정 없이 전환되는 문제점을 주장한다.⁴⁰⁾ 또한 조용훈은

777.

37) 장석인 외, “종교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138.

38) 공석기,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85.

39) 차정식, “오이코노미아와 사회적 기업의 성서신학적 기초,” 28.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회의 반기업적 정서를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제시한다.⁴¹⁾

한편, 룻기에 나타난 신학과 사회윤리 사상은 헤세드와 고엘로 설명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숨어서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아가페적 돌봄의 헤세드이며, 이웃사랑은 이삭줍기와 기업 무름, 그리고 수훈제도의 구약시대 사회안전망으로 오늘날 기독교 돌봄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엘제도이다.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를 선행연구의 활성화 요인과 룻기에 나타난 신학과 사회윤리 사상을 종합하여 기업가치와 기업경영으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치는 기본정신과 목적, 사회적 기여로 구분하고, 기업경영은 조직 형태와 경영자,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기본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이웃사랑은 인간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이웃사랑만 강조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구체적 전략으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으로 설명된다. 문화명령은 창조질서 회복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 즉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다. 선교명령은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총체적 선교와 연관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의 신앙을 실천하는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40) 공석기,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97-99.

41) 조용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의 과제에 대한 연구,” 175-177.

셋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기본조건은 사회적기업 인증 규정을 뛰어넘는 아가페적 돌봄을 추구해야 한다. 룯기에서 율법을 문자적 해석한 아무개 사례보다 율법이 추구하는 정신으로 해석한 보아스와 같은 아가페적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법률에 근거한다. 일부 연구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에 포함한다.⁴²⁾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와 교회, 교회 부설센터 또는 기관, 그리고 성도가 경영하는 기업 등의 기독교 조직체는 잠재적 또는 예비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된다.

다섯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경영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본정신이 충만하고,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 즉 리더십과 역량, 혁신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 윤리에 기반하여 아가페적 돌봄과 고엘 역할을 감당하는 경영자이다.

여섯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은 공동체의 합의뿐만 아니라 개인적 결단도 중요하다. 공동체의 합의 과정은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즉, 아무개와 같이 율법의 문자적 해석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 보아스와 같이 율법의 정신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개인적 결단이 보완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일곱째,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관점과 후계자 관점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은 소득과 이윤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계자 관점은 기업이 법인격을 지닌 유기적 조직체라

4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오단이 외는 사회적기업으로 포함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reserve.do>, 2020.08.10.; 오단이 외,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90.

는 점에서 지속경영 가능한 후계 경영자가 양성되고 이들에 의해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원리를 포함한다. 즉, 일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보다 기독교 가치가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기독교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표현된다.

2. 기독교 사회적기업 모델

1) 목적 관점 모델

(1) 비즈니스 선교 모델

비즈니스 선교(BAM, Business as Mission)는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관점에서 바라보는 총체적 선교 원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선교명령(막 16:15-20)과 문화명령(창1:26-28)을 통합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비즈니스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적 교회론의 한 영역이다.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사회와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즈니스 선교의 주체이다.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선교목회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정의 실현은 사회적 선교가 된다.

룻기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달하는 비즈니스 선교가 확인된다. 보아스는 사회적 약자로 전략한 룻을 자신의 밑에서 품꾼 수준의 이삭줍기를 허용하는 아가페적 돌봄으로

삶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방인 룿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으로 전환되는 신앙적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룿기에 나타난 비즈니스 선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총체적 선교로서 성경적 삶과 신앙의 유기적 결합이 나타난다. 사회적 약자인 나오미와 룿을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가페적 돌봄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룿 2:4; 12)을 보여준다.

둘째, 일자리 제공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삭줍기는 단기적 경제문제 해결방안이다. 보아스는 룿에게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권하여(룿 2:8) 단순한 이삭줍기 수준을 뛰어넘어 품꾼 지위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셋째, 사업적 이익과 선교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와 아무개의 사례에서 사업적 이익과 선교 사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무개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한다. 하지만 보아스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무름의 사회적 가치와 룿을 베들레헴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선교를 병행한다.

(2) 사회적 책임 모델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 등으로 분류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기업의 관심으로 계약이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는 의무”⁴³⁾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법인격을 지닌 기업도 헤세드와 고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굳패스터와 매튜(Goodpaster, K. & J. Mathews)도 기업을 도덕적 실체로 보고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

43) 이요섭,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 『신학과 실천』 15(2008), 213.

즉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 캐롤(Carroll, Archie B.)은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확장하여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추가로 제시한다.⁴⁵⁾ 백유성과 김종길은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 공동체적 책임이 빈곤과 실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한다.⁴⁶⁾

룻기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기업(inheritance)으로서 토지를 활용한 농업기반의 기업(company) 활동이 제시된다. 보아스는 밭에서 곡식을 베는 소년들(룻 2:5-7, 9, 15)과 이들을 관리하는 사환(룻 2:5), 그리고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는 소녀들(룻 2:8)을 조직화한 기업형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아스 소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삭줍기로 시작되어 고엘제도와 수혼제도로 확장된다. 따라서 보아스 소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경제적 책임과 도덕적, 신앙적 인물인 보아스의 특징으로 설명되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이삭줍기를 실천하는 공동체 책임과 기업 무를 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선적 책임도 감당한다.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선교목적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선교명령과 함께 문화명령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광의의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룻기에서 나타난 보아스의 기업 활동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모델도 강조되어야 한다.

44)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과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Goodpaster, K. and J. Matthews, "Can A Corporation Have A Consc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60(1982), 135-137.

45) Carroll, Archie B.,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1991), 39-43.

46) 백유성, 김종길,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헌연구," 「사회적기업연구」 6(2013), 42.

2) 운영 주체와 수혜대상 관점 모델

(1) 운영주체 관점 모델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적기업도 누군가에 의해 설립되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는 관련 법률에 정의된다는 점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도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룯기의 배경인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현대의 마을기업⁴⁷⁾으로 살펴보고, 보아스 소유 기업(company)을 현대의 상법상 회사 모델로 검토한다.

먼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⁴⁸⁾ 2019년 기준 도시는 인구변화 기준 79.7%,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 73.7%, 사업체 수 변화 기준 30.8% 등이 쇠퇴하고 있다.⁴⁹⁾ 도시 쇠퇴로 자본의 지역편중 심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등 예상되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룯기는 지역의 빈곤 중심의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룬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 내 빈곤의 사회적 약자 문제를 희년과 고엘제도와 수혼제도

47) 조용훈(2017)은 마을기업의 운영원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특정 마을로 사업영역을 국한하는 것의 여부가 다르다는 특징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구분보다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신의 관점에서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의 한 유형으로 본다. 조용훈,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017), 170.

48)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서울: 행정안전부, 2020), 1.

49)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쇠퇴 진단지표별 전국 변화 현황(2013-2017),” 『국토』 453(2019), 부록.

그리고 이삭줍기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룻에게 이삭줍기를 넘어선 품꾼 대우(룻 2:9, 23)로 임시적 고용과 이삭줍기보다 더 높은 소득(룻 2:7)을 보상한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나오미와 룻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어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

한편, 상법상 회사모델은 경제적 가치 추구 중심의 기독교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이다. 2018년 인증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는 1,278개(60.2%)로 주요 사회적기업 형태이다.⁵⁰⁾ 2017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 상법상 회사는 유급근로자와 평균임금, 지역사회에 재투자 금액 등 사회적 기여 활동이 다른 조직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⁵¹⁾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영리 목적의 기업형태보다 비영리 목적의 조직형태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선교도 상법상 회사모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룻기의 아무개 사례와 같이 사회적 약자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모델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존재하는 공동체 모델의 조직형태를 보완하는 청지기 정신의 상법상 회사모델이 필요하다.

(2) 수혜대상 관점 모델

룻기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는 과부인 중장년의 나오미와 젊은이 룻, 그리고 모압 여인이다. 이를 기독교 사회적기업 모델로 적용하면 빈곤 노인 돌봄형과 청년실업 돌봄형, 그리고 다문화가정 돌봄형으로 구분된

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성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4.

51) 김현중 외, 『2017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성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40; 46; 79.

다.

첫째, 한국의 노인 빈곤은 2018년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며,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율도 약 30% 수준이다. 경제적 문제로 노인 자살인구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⁵²⁾ 룯기는 구약시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의 집이 여자들의 안식처(룯 3:1)이며, 자식은 노년의 돌봄이(룯 4:15)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으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한다. 한국의 노인들이 주된 일자리를 보유한 상황에서 풍요한 삶이었다면, 자식들이 출가한 이후 자녀들과 공적 돌봄을 기대하지 못하는 빈곤에 처하게 된다. 텅 빈 상태로 빠진 나오미의 상황과 같은 현대 노인의 빈곤을 채우는 빈곤 노인 돌봄형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2017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로 OECD 평균 53%보다 낮은 수준이다.⁵³⁾ 20대 후반(25-29세)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와 청년 노동 공급의 증가,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적 임금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룯기 배경인 구약시대도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사회구조적 문제가 확인된다. 또한, 룯의 사례처럼 헤세드의 품성과 이삭줍기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적극적인 실천력을 갖춘 청년에 대한 지역 사회와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미래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예비 사회적 기업가이며, 활동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기독교 가치와 경제적 가치 등을 통합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52) OECD, *Economic Survey Korea Overview*,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2020.4.10.

53) OECD, *Investing in Youth: Korea*, <https://www.oecd.org/publications/investing-in-youth-korea-4bf4a6d2-en.htm>, 2020.4.10.

사회적 관계는 30~40%가 없으며, 그나마 모임 활동도 모국인 친구(58.9%), 학부모(38.6%), 종교활동(21.2%), 지역주민(13.2%), 민간단체 활동(9.4%) 등으로 조사되었다.⁵⁴⁾ 사회적 차별의 경험은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2018년 30.9%로 2015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녀는 2015년 6.9%에서 2018년 9.2%로 증가하였다.⁵⁵⁾ 룻도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인이다. 사회적 약자로 경제적 어려움과 베들레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모갑 여인으로 소개하는 사회적 어려움이 확인된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그들 자녀의 사회적 차별 문제해결 및 일자리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돌봄형 모델이 필요하다.

3) 세대융합형 모델

세대융합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모델로 사용되었다.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의 열정과 패기를 결합하여 창업의 효과를 높이는 창업방법으로 세대융합창업 개념이 등장했다.

룻기에서도 룻과 보아스의 세대융합이 나타난다. 자켄펠드는 룻을 20대 중반, 그리고 나오미를 40대 초반으로 본다.⁵⁶⁾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40대 초중반으로 볼 수 있다. 김지찬은 보아스와 룻을 각각 80세와 40세로 제시한 유대 전승을 소개한다.⁵⁷⁾ 구약시대의 수(number) 개념이 현대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룻과 보아스는 다른 세대의 사람으로 세대융합에 해당한다.⁵⁸⁾

54) 최윤정 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세종: 여성가족부, 2019), 180-209.

55) 위의 책, 210-216; 579-586; 613-640.

56) Sakenfeld, K. D., *Interpretation : Ruth*, 민경진 옮김. 『현대성서주석-룻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64.

57) 김지찬은 유대전승에서 제시하는 나이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되, 룻은 20대 중후반, 보아스는 40~50대 중년으로 추정한다.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508.

룻기에 나타난 세대융합 관점의 특징은 사회적 가치의 혁신과 역량 강화, 그리고 인적 관점의 지속가능성이다. 먼저 혁신관점에서 검토하면 룻은 보아스에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줍기를 허락해 줄 것(룻 2:7)과 타작마당에서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요구한다(룻 3:9). 곡식 단 사이의 이삭줍기는 통상적인 이삭줍기의 관습을 넘어선 요구이며, 타작마당에서 기업 무를 자의 책임과 수훈제도를 연결하며 율법의 조문을 넘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룻의 요청을 보아스는 기꺼이 받아들여 당시 사회적 관습과 율법을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 혁신으로 헤세드를 실천한다.

둘째, 보아스는 룻의 잠재 역량을 강화한다.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헬 공동체의 이방인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한다. 현숙한 여인(룻 3:11)은 보아스를 설명하는 유력한 자(룻 2:1)를 의미하는 하일을 공통으로 사용한다.⁶⁰⁾ 현숙한 여인은 룻기와 잠언(잠 12:4, 31:10)에서 '경제적 능력과 도덕적인 자질을 갖춘 여자의 행동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된 여인'을 의미한다.⁶¹⁾ 보아스는 이방인 신분의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역량있는 여인으로 변화시킨다.

58) 강인한은 노아와 아브람, 모세 등의 사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룻과 나오미의 사례에 나타난 인간 간의 언약으로 결혼의 특성을 제시한다. 계약 관점의 결혼이 불신과 제한된 의무 중심으로 조건적이며 결과에 근거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언약 관점의 결혼은 이타적 동기로 출발한 신뢰 기반의 무제한적 책임으로 무조건적이며 관계에 기초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남편 간의 연합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 간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한다. 강인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9(2005), 92-108.

59) James, C. C., *Finding God in the margins*, 이어진 옮김.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고양: 이레서원), 87.

60) 하일은 '힘(strength), 능력(ability), 가치(worthy), 부(wealth), 군대(army)를 의미한다.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518.

61) 위의 책, 519.

셋째, 인적자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18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65.0%, 5년 생존률을 29.2%로 발표했다.⁶²⁾ 또한 2000년 매출액 500대 기업 중 2017년 순위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235개(47.0%)이다.⁶³⁾ 기업 생멸은 경제적 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 분야와 사업모델을 결정하는 것으로 혁신과 경영자를 비롯한 인적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의 혁신성과 잠재 역량은 보아스 소유의 기업(company)과 유다 가문의 기업(inheritance)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IV. 나가는 말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일제강점기의 협동조합과 기독교청년회와 같은 시민사회 활동을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교회와 신앙공동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조직형태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주축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제도화된 사회적기업과 인증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교회부설 센터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교회의 선교관도 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역할로서 선교적 교회론이 도입되었다. 선교적 교회론은 전문목회자의 공급과잉 문제로 교회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직 사역과 농촌목회를 마을기업과 결합하는 등의 기독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2) 통계청,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9236, 2020.4.10.

63) 위평량, 『한국 500대 기업의 동태적변화 분석과 시사점(2008-2017)』(서울: 경제개혁연구소, 2018), 23.

이처럼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며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기독교 가치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와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떠한 원리로 운영되며, 그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 강조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체계에서 접근방법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선교적 교회론, 청지기 사상 등 특정한 신학과 사회윤리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룯기는 문학적 작품, 역사적 관점, 구원과 선교의 신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룯기의 텅 빔을 채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헤세드와 고엘 정신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사회윤리적 관점의 기독교 사회적기업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원리와 모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룯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성경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와 차별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룯기를 기독교 사회적기업 가치라는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룯기의 헤세드를 아가페적 돌봄으로 정의하고, 구약 율법의 사회적 안전망 제도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적 근거와 규범적 실천적 사례를 현대의 사회적기업 가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을 연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단편적, 담론적, 추상적으로 제시된 기독교 사회적기업 원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공공신학 관점에서

그 역할과 책임, 시민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정의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천적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사회적기업 원리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기독교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으로 지속 가능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셋째, 룻기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회복적 관점의 기독교 사회적기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기독교 사회적기업 모델은 신앙적 가치의 강조점과 조직형태,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의 유형과 그 필요성을 해결하는 접근방법론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룻기의 기독교 신학과 사회윤리 사상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가페적 돌봄을 통한 회복적 관점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공동체와 상법상 기업, 그리고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 다문화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넷째, 기독교 사회적기업과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제시했다. 일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구성된다. 그간의 연구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여기에 기독교 가치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기독교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기독교 가치가 일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고, 고유의 기독교 가치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재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와 기독교 사회적기업에서 일반적인 사회적기업과 차이점이 많이 존재함에도 자의적 해석과 그 결과를 수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신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계 차원의 기독교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신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를 아가페적 돌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가페는 헌신적 실천을 포괄하지만, 관념적, 추상적 인식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행위가 전제된 아가페적 돌봄으로 해석하고 실천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실천은 공동체의 합의된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 룻기의 구약시대 율법이나 현대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모두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문제해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아가페적 돌봄을 실천하는 신앙과 사회윤리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로 도출된 기독교 사회적기업에 원리와 모델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실행방안과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사례연구 및 평가는 향후 연구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길현중, 이경희, 이영수, 안승재, 김성용. 『2017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성남: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 김윤희. “룻기3장: 헤세드의 세 사람.”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07』.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김중은. “룻기의 구조 및 신학.”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07』.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김지찬.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주해에서 설교까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 민종기. “요셉의 토지 제도와 회년법의 사회 정의.” 김수정 대표편저. 『고엘, 교회에 맡겨라』. 서울: 홍성사, 2017.
- 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성남: 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 송병현. “룻기의 신앙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07』.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위평량. 『한국 500대기업의 동태적변화 분석과 시사점(2008-2017)』. 서울: 경제개혁연구소, 2018.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등재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세종: 여성가족부, 201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성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 Frost, M. & Hirsch, M. *The sharpen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옮김.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 James, C. C. *Finding God in the margins*. 이여진 옮김.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 고양: 이레서원, 2018.
- Sakenfeld, K. D. *Interpretation: Ruth*. 민경진 옮김. 『현대성서주석-룻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강영실. “레위기와 룻기에 나타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 10(2005), 195-218.
- 강인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9(2005), 79-112.
- 공석기.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업 길 찾기.” 『신학과 사회』 28(2014), 80.
- 박동현. “구약의 경제 윤리.” 『구약논단』 1(1999), 5-26.
- _____. “구약의 경제 윤리(II).” 『구약논단』 1(1999), 139-164.
- 백유성, 김종길.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헌연구.” 『사회적기업연구』 6(2013), 27-49.
- 봉원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기업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017), 387-401.
- 신득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약본문 해석과 적용: 룯기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0(2015), 117-134.
- 오단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1(2013), 285-311.
- 오단이, 김정선, 하태선.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국제개발영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7(2017), 79-110.
- 이사야.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룯기의 윤리적-신학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6(2013), 217-244.
- 이성혜. “룯기에 나타난 헤세드.” 『개혁논총』 33(2015), 9-39.
- 이요섭.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 『신학과 실천』 15(2008), 211-236.
- 이종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약성서적 근거: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관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65(2014), 57-89.
- 장석인, Simon Fietze, 성연옥, 임상호. “종교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9(2018), 125-142.
- 조용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의 과제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2013), 165-188.
- _____. “위험사회의 사회적 특징과 기독교적 성찰.” 『신학사상』 181(2018), 141-166.
- _____.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장

- 신논단」 49(2017), 165-189.
- 차정식. “오이코노미아와 사회적 기업의 성서신학적 기초.” 「신학과 사회」 32(2018), 9-34.
- 최경석.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에 대한 평가.”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65-292.
- 황병배. “한국 기독교 사회적 기업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2(2012), 755-780.
- Carroll, Archie B.,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1991), 39-48.
- Goodpaster, K. & J. Matthews, “Can a corporation have a consc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60(1982), 132-141.
- 고용노동부. “종교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307>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쇠퇴 진단지표별 전국 변화 현황(2013-2017).” 「국토」 453(2019), 부록.
- 사회적기업육성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94&efYd=20120802#0000>
- 통계청.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923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03월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selist_country_popup.do
- _____. “예비사회적기업이란.”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reserve.do>
-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울: 행정안전부, 2020.
- OECD. *Economic survey Korea overview*.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 _____. *Investing in youth: Korea*. <https://www.oecd.org/publications/investing-in-youth-korea-4bf4a6d2-en.htm>

논문투고일: 2020년 06월 29일

심사개시일: 2020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18일

• 국 문 초 록 •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적기업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룻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룻기 전반에 나타난 헤세드와 고엘 이야기를 아가페적 돌봄과 공동체의 사회적 안전망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일곱 가지 원리와 여덟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웃사랑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고유 가치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경의 이야기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을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의 학제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독교 사회적기업을 기독교 가치 관점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윤리, 기독교 사회적기업, 돌봄경제, 룻기, 헤세드, 고엘
